

# 말라버린 식수원·곡물수출 반토막...중남미 100년만의 가뭄

### ‘짠수돗물’ 우루과이,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 고갈 압박 아르헨티나 “곡물 생산량 급감...수출액 최저 전망”

중남미가 혹독한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파나마 등 곳곳에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액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짠수돗물’ 우루과이, 비상사태 선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과 정확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다.

70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이라는 분

석 속에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 몬테비데오와 카넬로네스에는 지난 달 초 순부터 수돗물에 염분 농도 높은 강 하구 쪽 물을 섞어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상수 공급원인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가 고갈될 위기에 놓이면 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수돗물 공급 중단 위기가 커지면서 몬테비데오 주변에서는 병물 가격이 2~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루이스 라카에 포우 대통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몬테비데오에 물 부족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

혔다. ◇ ‘100년만에 최악’ 파나마 운하 물 부족 경고등

강수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중미의 파나마도 물 부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파나마 운하에 수량이 줄면서, 선박들이 평소보다 화물량을 줄여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나마운하청은 파나마 운하 네오파나막스 화물 선박(2016년 6월 파나마운하 확장 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흘수(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를 13.41m(44.0피트)로 설정했다.

파나마 일간지인 프렌시리브레는 파나마 운하 일대에 100여년 만에 가장 건조한 시기가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하면 파나마 운

하를 통한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교역량의 4~5%는 파나마 운하를 지난다. 특히 브라질 소고기, 칠레 와인, 구리, 에콰도르 농산물 등은 대체로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 화물에 실린다.

◇ 아르헨티나 곡물 생산량 감소...수출 ‘반토막’ 브라질, 파라과이 등과 함께 남미 곡창지대를 이루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속적인 가뭄이 곡물 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주요 곡물 거래소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곡물거래소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기간 주요 곡물 생산량은 직전 시기와 비교해 대두(콩) 2천200만, 옥수수 1천900, 밀 1천150만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뭄으로 바짝 마른 파나마 알라후엘라 호수.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올해 곡물 수출 규모는 184억달러(2조7천억원)라고 로사리오 곡물로스리오거래소는 전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로서는 ‘돈줄’인 곡물 생산 부진으로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일본 시민단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 “이웃 나라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안팎에서 온 150여명이 전날 현청사 주변을 행진하며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후쿠시마현 지사와 의회를 상대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류 방침을 중단시키도록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이날 집회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주최로 진행됐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시의원으로서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토 가즈미 씨는 “후쿠시마의 어업은 방류가 이뤄지면 파괴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 출신 가와이 히로미 씨는 “이웃 나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의 어민단체인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인 김영철 씨가 보낸 “완전히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는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이 방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지도 소개됐다.

한편 일본 어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에 반대 의사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등 유통업자들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해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지난 20일 이와키시 중앙 도매

시장에 정부 관계자를 불러 처음 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수산회사 사장은 “소비자와 가까운 입장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지만, 방류될 경우 소비자들이 물었을 때 곤란하지 않도록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

다.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와 도쿄전력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들어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등 3개 현과 홋카이도의 어업단체 간부들과 잇따라 만났지만, 어민들은 계속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온두라스 여성 교도소서 폭동...“최소 41명 사망”

### 화상·총상 흔적...당국, 라이벌 갱단원 간 분쟁 추정

중미 온두라스의 여성 교도소에서 20일(현지시간) 갱단원 간 분쟁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폭동이 일어나, 41여명이 숨졌다.

온두라스 일간지 라프렌사와 엘에탈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약 25km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교도소(여성 사회적응센터·CEFAS)에서 일어났다.

재소자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했는데, 내부에서 총격과 방화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서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지 매체는 최소 4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중 25명은 화상, 16명은 총상

을 입었다고 라프렌사는 전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검게 그을린 시신이 교도소 내부에 흩어져 있는 사진도 공유되고 있다. 교도소 외곽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확인된다.

현지에서는 중남미 일대 악명 높은 갱단인 ‘미라살바트루차’(MS-13)와 ‘버리오18’ 폭력조직원 간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조직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등 중미를 넘어 미국에서도 그 잔혹성으로 악명 높다.

온두라스에서는 2019년 교도소 내 갱단 싸움으로 18명의 수감자가 사망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화재로 300명 이상이 숨진 사건도 있었다. /연합뉴스

## ‘상어 1만마리’ 삭스핀 29t, 브라질서 적발

브라질 정부가 아시아로 수출될 뻔 했던 상어 1만마리 분량의 상어 지느러미, 이른바 ‘삭스핀’을 압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연구소(Ibam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28.7t 분량의 삭스핀을 포획지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상어 지느러미 무게 등을 감안하면 청새리상어 및 청상아리 등 멸종위기종 약 1만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2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 제 상  
제 사 상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